

김규언 교수님 정년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손명현

2016년 8월 1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 연구소의 제 20회 심포지엄이 저의 은사님이신 김규언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김규언 교수님께서 1984년부터 졸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에 몸담으시어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분야에 대한 기초와 임상 연구, 진료 및 교육에 매진, 소중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심과 동시에 수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아울러 대외 활동도 활발하시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2000-2003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이사장(2005-2007년)과 회장(2012-2013년)을 역임하시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학술상(2008년)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부설 알레르기 연구소장(2007-2015년), 한국식품면역연구회 회장(2014-2016년)을 역임하셨고, 정년퇴임 하시는 날까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통합 학술지인 AARD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편집위원장(2013-2016년)을 맡으시어 열정적인 학술활동을 지속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저술활동을 통해 한국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연구의 발전과 국민 인지도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김규언 교수님께서 평생을 주력하셨던 분야인 “식품 알레르기”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연관 분야 연구의 주축이 되는 연자들이 참석하시어 열정적인 강의를 통한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김규언 교수님은 “Past and Present on Food Allergy in Korea”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한국 식품알레르기 연구의 첫 시작부터 현주소, 가장 최근의 이슈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까지를 총망라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방대한 양의 귀한 자료들이 가득한 강의 슬라이드와 평소의 또박또박 눌러쓴 꼼꼼한 네모 글씨만큼이나 세밀하시고 매사에 철저하셨던 교수님은, 동시에 후배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

고 따뜻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이어진 정년 기념 만찬에서는 교수님의 가족, 선, 후배 및 동료들과 저를 비롯한 제자들이 교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규언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백오십 여명이 교수님의 의사로서의 지난 45년을 함께 추억하며 소중한 인연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오셨다는 김규언 교수님, 정든 교실을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감사의 인사만을 전하셨던 스승님,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생님과의 모든 기억에 좋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결같은 스승으로서 33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과를 이끌며 소아 알레르기 연구의 이정표를 세우시고, 일평생을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헌신하셨던 김규언 교수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축하 드리는 바입니다.